

星泉의 신앙관



예수와 석가는 이 세상에 와서 무엇을 하고 갔는가? 생각(명상)을 하고 말씀(설법)을 하였다. 생각의 내용과 말씀의 주제는 무엇인가? '생각하는 나는 누구이며 나를 있게 한 이 우주 전체는 무엇인가?' 였다. 스님들이 화두로 내세우는 이 뭇고(시슴마)가 바로 이것이다. 이에 맹자(孟子)가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였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매우 적다. 매우 적은 것
을 여느 사람들은 버렸는데 그이(군자)는 간직한다(人之
所以異於禽獸者幾希 庶民去之 君子存之) (『맹자』 이루 하
편)

이 말이 성악(性惡)설을 주장한 사람의 말이라면 이상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성선(性善)설을 주장한 맹자의 말이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류영모의 말을 들으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어머니가 낳아 준 나(몸)는 참나가 아니다. 이 몸은 짐승으로 죽을 생명이니 살아 있어도 죽은 것이다. 한얼님이 주시는 얼나로 솟(거듭)나야 한다. 얼나는 성(性)을 초월한 영원한 생명이다.”(류영모 『다석어록』, 30쪽) 그는 50살을 살고 몸나로는 죽으면서도 얼나(Dharma)로는 성(性)를 여의어 영생한다고 말하였다. 석가는 2 줄나는 이 우주의 임자이신 날바나

(Nirvana)님이 주신다. 나는 이 세상에 와서 닐바나님께
로 이르는 대도(大道)를 열었다고 말하였다.

공도자(公都子)가 맹자에게 물었다. “다 같은 사람인데 어쩌서 어떤 이는 대인(大人: 성자)이 되고 어떤 이는 소인(小人: 짐승)이 됩니까?” 맹자가 대답하기를 “대체(大體)를 좇으면 대인이 되고 소체(小體)를 좇으면 소인이 된다. 귀와 눈은 듣고 보기는 하나 생각하는 일을 못하여 물체에 막히므로 물체를 만나면 물체에 끌려간다. 마음은 생각한다. 깊이 생각하면 한얼님의 생명인 얼을 얻지만 생각하지 못하면 얼을 얻지 못한다. 큰 얼나로 먼저 일어서면 작은 제나(몸나)가 주도권을 빼앗을 수 없다. 이래서 큰사람(大人 성자)이 된다. (『맹자』 고자 상편)

맹자가 언급한 큰 것, 곧 대체(大體)를 바로 알아야 한다. 맹자는 우주 정신(The Spirit of Universe)을 호연지기(浩然之氣)라 하였으며 자신은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간직한다)고 말한 이다. 호연지기는 예수가 말한 열(성령) 곧 석가의 다르마(Dharma)이다. 가장자리 없이 영원 무한한 허공(빔)에 아니 계시는 데가 없는 열로 한얼님(닐바나님)이다. 온통으로 하나 뿐인 절대(절대)의 한얼님보다 큰 것은 없다. 만물은 허공의 부속물에 지나지 않는다.

5학년 졸업 때까지 5년 동안 담임을 맡은 김교신 선생을 만나고부터였다. 처음에 담임이 크리스천인 것을 알고 아주 실망하였다. 김교신은 지리 교사를 가르쳤다. 수업 강의를 들을 때 은은히 풍기는 나라사랑의 정신이 류달영의 젊은 피를 용솟음치게 하였다. 재능도 있고 품행도 좋은 류달영이 김교신의 마음을 사로잡아 김교신이 혼자 내다시피 하는 월간 종교 잡지 『성서조선』의 교정을 류달영 학생에게 보아 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었다. 교정을 보자면 저절로 성서조선 잡지에 실리는 원고를 먼저 읽어 보게 된다. 고보 학생 류달영에게는 과학에 다니는 것 못지 않은 지식과 교양을 쌓는 기회가 되었다. 여름철 겨울철의 성서연구회에 참석하여 류영모 함석헌 송두용을 비롯한 여러 강사들의 강의로 들게 되었다. 그리하여 양정 고보를 졸업할 때는 어엿한 교수를 경배하는 크리스천이 되었다. 다만 교회에는 가지 않는 가정에서 예배 보는 이른바 무교회 신도가 된 것이다. 크리스천이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 양정고보 4학년 때 금강산 수학여행에서 일어난 일이다.

금강산을 구경한 뒤에 돌아오는 길에 석왕사를 둘러 삼방골 약수를 마시게 되었는데 어느 급우와 물 많이 마시기 겨루기를 하다가 약수 과음으로 위가 터졌다. 심한 하혈이 이어져 하숙 하는 방에 피칠을 하게 되었다. 왕진온 의사가 처방한 약을 먹고 하혈이 멈추었다. 담임인 김교신 선생이 먼 곳까지 찾아와 위로하며 이 나라 이 겨레를 위하여 큰 일을 할 류군을 꼭 살려달라는 기도까지 해주었다. 그 일을 겪은 류달영 학생의 말을 직접 들어본다.

“그 때 나는 같은 방을 쓰던 학우의 책상 위에 있는 신약성서를 읽기 시작하였다. 서양 미신의 권위서로만 여겼던 성경을 병상에서 읽으면서 예수님의 깊은 진리 정신과 넓은 자비 사상에 감격하게 되어 몸으로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정신적으로는 다시 태어나는 계기를 맞았다.”(류달영 『소중한 만남』)

그 뒤로 류달영은 스스로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류달영은 성경과 찬송가를 들고서 교회에 다니며 예배 보는 크리스천은 아니었다. 김교신은 주일이면 어느 가정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 보는 이른바 무교회 신앙인이었다. 김교신이 일본에 유학을 갔을 때 도

쿄(東京)에 있는 무교회 신앙을 창시한 우치무라 간조의 무교회 모임에 나가서 배운 것이다. 무교회의 특색은 서양 선교사와 무관하며, 교회가 없으며, 목사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앙의 내용은 사도신경에 입각한 교의신학 그대로의 정통 신앙이었다. 그래서 류영모는 이때금 오류동에 있는 송두용의 집에서 열리는 무교회 모임에 참석하였으나 ‘우치무라는 정통 신앙이지만 톨스토이나 나는 비정통이라 무교회의 선생이 될 수 없다’고 선언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류달영은 스승인 김교신과는 다르게 사도신경을 부인하여 무교회 신자들로부터 이단자라는 지적을 받았다. 류달영은 자신의 신앙상의 좌표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종교 의식을 초월한 크리스천으로 세례도 안 받고 교적도 없이 성경 중심의 신앙을 조용히 지켜 왔다. 종교는 사람만이 가능한 정신의 활동이다. 사람이 아무리 고도로 발달된 과학 지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도 높은 사상적인 견지에 보면 어머니의 자궁 안을 우주로 삼고 있는 태아와 다를 없다. 사람은 자신의 정신 수준인 인생관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무능과 무력을 절감하게 된다. 동시에 저 위의 뜻을 좇아 높고 깊고 넓고 바르게 살 고자 힘쓴다. 이러한 삶의 목적을 이루고자 성심을 다 할 때에 위에서 주는 마음의 평안과 용기와 지혜를 받아 자기 능력 이상의 참되고 값진 삶을 살게 된다. 예수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도 내 뜻대로 마음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는 그 정신으로 나 자신이 삶의 위기에 부딪쳤을 때에도 좌절하거나 절망치 않고 나아갈 수 있었다.”(류달영 『소중한 만남』)

류달영과 석가 붓다가 가까워지게 된 것은 6.25 전쟁으로 온 나라가 폐허가 되고 온 국민이 거지가 되었을 때이다. 의, 식, 주 다음에는 교육이 중요하다. 교육에서도 대학 교육의 비중이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대학 교육이 전쟁통에 유명무실하게 되었으니 대학 교육의 부활이 시급하였다. 대학 교육에는 무엇보다 실력과 덕망을 갖춘 교수 확보가 중요한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었다. 그래서 미국 정부의 후원으로 기존의 교수들도 교환교수라는 이름으로 미국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게 하였다. 거기서 학위도 취득하게 하였다.

류달영은 1956년 수원에 있는 서울대학교 수원 농대

에서 미국 미네소타 대학으로 교환교수로 가게 되었다. 류달영은 국제적인 구호 대상이 된 한국의 처지이지만 한민족의 존재감이라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것으로는 이 나라의 역사적 문화유적을 사진으로 담아서 미국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전쟁의 화를 면하여 그대로 남아 있는 경주 석굴암 대불(大佛)이 머리에 떠올랐다. 류달영은 서예로도 그 재능을 드러내었지만 탁월한 미적인 감각을 타고났다. 류달영은 양정고보 때 담임 김교신 선생이 “류군은 그림을 잘 그린다”는 말 한마디만 들려주었으면 미술을 전공하게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김교신은 지리를 가르쳤다. 류달영의 예상은 정확하였다. 석굴암 대불을 비롯한 불국사의 사진은 미국 사람들이 보고서 감탄해 마지 않았다. 역사가 짧은 미국 사람에게는 일천년이나 되는 그런 고적이 있을 수도 없었다. 그 뒤로 한국인의 자존감을 살려준 석굴암 대불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석굴암 대불은 가까이 모시고 볼 수 없지만 작은 불상들을 사서 서재나 사무실에 모시는 취미를 갖게 되었다. 그렇다고 불교신자들처럼 불상에 합장 예불을 하는 일은 없었다. 예술 작품으로 귀하게 여긴 것이다. 예술 작품이 존경하는 석가 붓다라 금상첨화라 할 것이다. 모은 소불상 숫자가 거의 2백에 이르렀는데 아드님인 류인걸 이사장이 류달영의 강의를 들은 바 있는 절정 스님을 통해 조계종에 기증하였다.

실내에 여러 소불상을 모셔놓고 불상을 바라 본 류달영의 소감을 들어 본다.

“나이 들수록 불상을 바라보노라면 시간이 흐르는 줄 모르게 된다. 그것이 우람한 석불이거나 손가락만한 작은 청동불상이건간에 마음을 가라 앉히고 감상할 때에는 비록 그 조각이 예술적으로 잘되고 못된 차이점은 있을 지라도 조각하는 사람들 특히 옛날의 조각가들은 오늘처럼 예술 지상주의에 사로잡힌다거나 또는 세상의 인기를 드물여보려는 따위 천박한 야심과 잡념이 털끝만치도 없었다. 그러므로 인류사에 길이 빛날 걸작을 남기면서도 그것이 누구의 작품인지 우리는 오늘까지도 그 이름을 모르게 되었다.”(류달영 『대추나무』)

류달영은 싯달타 태자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빈손 맨몸으로 오로지 진리를 찾고자 집(가비라성)을 탈출한 것

은 역사적으로 가장 장쾌한 일이었다고 말하였으며, 또 아내와 아들까지 제자가 된 것은 참으로 복 받은 일이었다고 말하였다. 필자가 『금강경 역해』 저서를 내게 되었을 때 류달영(정칭 생략)에게 추천사를 써주심사고 소청을 하였더니 류달영이 파한대소하면서 대답하기를 “내가 쓸 자격이 있나, 있다면 부처님하고 나하고 생일날이 같은 것이라 할까”라고 하였다. 그래서 음력으로 두 분의 생일날이 한 날인 것을 알게 되었다.

필자의 금강경 역해 저서에 류달영이 쓴 추천사가 실려 있다. 이를 기록한 인연으로 생각한다. 추천사에 실려 있는 핵심 되는 구절을 인용한다.

“**〔박영호가〕** 불교에 소의경전(所依經典)이라 할 수 있는 금강경(金剛經)을 읽기 쉽게 우리 말로 옮기고 풀이해 책으로 출판하였다. 거기에 다른 종교의 경전과 비교해 불교인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종교인들도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에 접할 수 있게 했다. 더구나 부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일치함을 밝히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지금은 그 주장이 천동설(天動說) 가운데 지동설(地動說)을 주장한 갈릴레오 주장처럼 무모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모두가 받아들일 날이 오리라 확신한다.”(필자의 『금강경 역주』 류달영 추천사에서)

“한얼나라(날바나 나라)는 열람을 받기나니 여는 이는 들어가리라(마태 11:12) 그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독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 아버지 되시는 한얼님(날바나님)께서 열 성령, 다르마)을 주시지 않겠느냐.”(마태 7:7~11)

성천 류달영은 어려울 때마다 맹자(孟子)가 말한 큰 것(大體) 곧 한얼님에게 열성령, 불성)을 구하였다. 그리하여 위로부터 얻은 슬기(지혜)와 사랑(자비)과 날렐(용기)을 가지고 나이가 류달영이 맹자가 말한 대인(大人) 곧 한얼님의 뜻을 이르는 이가 되었다. 짐승인 제나(ego)를 죽이고 한얼님 뜻을 지닌 얼나로 살았다. 그리하여 탐욕 대신에 배움을, 진애(anger) 대신에 사랑(agape)을, 치정(嫉恨, 음욕 대신에 순결을 지켰다.

예수도 말하기를 한얼님은 만유(萬有)보다 크시다.”(요한 10:29)라고 하였다. 맹자의 대체(大體)를 좇는다는 것은 한얼님의 뜻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다. 그러면 한얼님의 아들이 성자로 대인(大人)이 되는 것이다. 소체(小體)를 따른다는 것은 짐승의 짐승 성질, 곧 수성(獸性)을 좇으면 짐승 노릇을 하는 소인이 된다는 것이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하였다. 간디는 20세기 지구 위에 나타난 대인이다.

“우리가 육체적(동물적)이기 때문에 초우주로 계시는 한얼님의 존재에 대한 영감적인 생각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없어야 할 것은 제나(自我)의 짐승된 욕망이다. 그러므로 짐승인 제나로 죽을 때 일어나가 깨어난다.(M.K.간디 『날마다의 명상』)

류영모의 말이다.

“뚝이란 때가 되면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옷 같은 것이다. 그리고 드러나는 것은 임자인 얼 뿐이다. 우주의 신비와 사람의 신성(神性, 얼나)은 한없이 깊은 곳에 담겨져 있는 이것이 인생의 본체이다. 예수 석가를 비롯한 성인들은 이것을 참나로 깨달았고 이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우리로 하여금 얼나를 깨달아 한얼님께로 나아가게 정신적인 진리의 복을 두들겨 후원하는 고동(鼓動)이다. 한얼님께 나아가라는 올바른 고동은 얼나를 깨달아 한얼님의 아들이 되는 최후 승리를 가져다 준다.”(류영모 『다석어록』)

성천 류달영은 앞서 다녀간 공자 예수 석가 같은 성인들의 언행(言行)에서 격려의 고동(鼓動)을 힘입어 한얼님의 뜻을 좇아 삶으로 한얼님의 아들이 되는 영광을 입은 이라고 말하였다. 이에는 결코 과장도 아첨도 아닌 사실이요 진실 그대로이다. 류영모가 성인(聖人)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성인(聖人)이 무엇이나? 물질에 빠지고 미끄러지려는 나를 물질을 차버리고 깨끗해지고 거룩해보자는 이가 성인이 아니겠는가? 얼나의 뿌리인 위(한얼님)를 그리고 생각해 것처럼 거룩해보자는 것이 성인이 아니겠는가? 내 위에 누가 있으라 하는 이는 지각이 없기로 철없는 이 같다. 자기 머리가 가장 위인 줄 알고 일을 저지르니 그 하는 일마다 못된 것이 될 수 밖에 없다.”(류영모 『다석어록』)

어린 류달영은 5살에 이미 아버지에게 천자문(千字文)을 배웠다. 이어서 아버지께서 세운 서당에 가서 동몽선습과 소학을 배웠다. 이어 논어를 배우다가 접고 소학교에 입학하였다. 소년 류달영은 유학자인 아버지로부터 공자와 맹자 두 분 성인은 세계의 대표적인 인물이므로 반드시 두 분의 가르침을 배워야 한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다. 그런데 뜻밖의 사건으로 다시 논어를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홀로 읽게 되었다. “나는 논어를 성서조선 사건으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어 다시 정독하게 되었다. 30을 넘은 나이에 서양의 고전들을 적지 않게 읽은 다음이라 비교해 보아도 논어가 참으로 인류의 소중한 경전임을 실감하게 되었다.”(류달영 『소중한 만남』)

류달영이 공자를 좋아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다. 예수는 동정녀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는니 석가는 어머니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는니 적게든 많게든 예수 석가는 신비화되어 미신의 냄새가 났는데 공자는 그런 얘기가 없는 것이 깨끗하게 느껴져 호감이 갔다. 공자에게 단 한 가지 걸리는 것은 공자는 태어날 때부터 세상 만물의 이치를 다 아는 생이지지(生而知之)의 인물이라는 아버지 말씀에 회의를 가졌는데 뒤에는 류달영이 스스로 알아내기를 공자는 배운 스승이 없어서 그런 말이 생긴 것임을 알게 되었다.

공자는 말하기를 제 마음을 닦아 남들을 평안케 할 것이며 제나를 이겨 차별 없는 사랑을 이루어라(修己安民 克己成仁)고 말하였다. 너그럽고 어진 마음을 가진 류달영에게는 큰 울림을 주는 하늘 소리의 바른말(正言)이었다. 성리학자인 주희같은 무신론에 가까운 조상숭배 사상과는 달리 공자는 천명(天命)을 으뜸으로 받드는 신앙인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주는데 나를 알아주는 이가 한얼님이시다(知我者其天乎)라 하였다. 예수에게 뒤지지않는 깊고 높은 신앙인이기도 한 공자였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류달영에게는 사도신경에 일컬어지는 예수는 도도지 믿을 수 없는 존재였다. 사람을 기만하는 무당을 이즈 싫어하는 류달영에게는 예수교도 무당과 별로 다르지 않는 다신으로 보였던 것이다. 구세군이 거리에서 전도하면서 주는 누가복음서를 받아가지고 집에 오서는 화장실 초지로 쓰기도 하였다.

예수를 기쁘게 한 것인 것은 양정고보에서 1학년부터

마침내 다석 류영모가 공자, 예수, 석가는 똑같이 짐승인 제나로 죽고 한얼님이 주신 얼나로 솟나 한얼님 뜻을 좇아 살고 간 한얼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아니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 공자, 예수, 석가의 몸이 아닌 얼은 한 생명인 것이다. 나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공자, 예수, 석가는 몸나가 죽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탈(無懼) 정신을 보여주었다. 류영모는 아예 죽음이란 없다고 말하였다. 몸은 아예 생명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석가는 80살로 죽으면서도 나는 생사(生死)를 여의었다고 말하였다. 예수는 영원히 사는 것은 얼나이니 몸은 부질없다(요한 6:63)고 말하였다. 이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을 것이다.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났다는니 죽은 제나(ego)가 다른 몸을 입고 윤회를 한다는니 말하는 것은 예수 석가의 가르침이 아니다.

나라의 주권이 씨알에 있는 민주(民主)의 나라에서 나라의 일꾼을 뽑는 선거 행사는 참으로 중요하다. 맹자의 말대로 아리(我利)를 추구하려는 소인(小人) 보다는 공익(公益)을 앞세우는 대인(大人)을 가려서 뽑아야 한다. 거짓말에 홀랑 넘어가는 우민(愚民)이 아님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 나라 교육은 대인을 길러내려는 교육이 아니다. 아리(我利)만 아는 소인들만 길러내는 것 같다. 민주주의가 빛나려면 서로 권좌를 사양하는 대인을 많이 길러내야 한다. 그 길이 평화통일의 길이기도 하다. 남북 분단의 비극도 권력투쟁에서 빚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도무지 권좌에 초연하였던 대인 성천 류달영이 더욱 그러워진다.